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눅 5:7-8)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에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두배에 채우니 거의 잠기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몬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앞에 자신 속에서 주님께 불평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실 때 부르셨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누가복음은 또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 즉 베드로를 두번째 부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첫번째 불렀을 때 주님을 따랐지만 가정의 형편과 알수 없는 이유로 주님을 떠나오게 된 이 사실을 보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8절에 “이를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 여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배가 잠기어 가라 앉힐 정도, 그물이 찢어질정도의 만선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주되심과 메시아 되심 앞에 돌이킨 것입니까? 별차이 없어 보이지만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생일에 자전거를 사주셔서 그 자전거를 보고 기뻐했는가? 아니면 자전거를 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해서 기뻐했는가? 같은 맥락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보고 그 복을 구하고 얻게 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맞습니다. 늘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3월 한달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평안하셨습니다까? 지난 한달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밴쿠버 사역과 저희 가정이 힘을 얻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19로인해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속에서 살아가는 체험을 적지 않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사역은 대학캠퍼스 유학생과 한인교포 1.5세를 전도하고 말씀공부를 통해 제자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주안에 행복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을 포함한 Multicultural Mission 사역입니다.

지난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생과, 1.5세 한인을 돕는 사역은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되어진 일들과 변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BCIC(Blessed Church In Christ 주안에 행복한 교회주일) 사역

매주마다 영어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한국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고 문법과 발음과 액센트를 고려해서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한국말로만 설교했을 때가 얼마나 쉽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어로 찬양을 하면 한국말로 했을 때 느낌과 다르고 그 단어가 주는 깊이 있는 의미를 모르기에 100프로 실감하며 찬양하지 못하듯 영어설교도 마찬가지로 영어단어가 실제 그들 피부에 다가가야 하기에 단어선정, 액센트, 침표 등.. 계속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설교처럼 안보고 설교를 해야 눈과 눈을 보고 전달되어야 하기에 그 문장을 많이 외워서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ZOOM을 통해 PPT를 공유해 가면서 찬양하고 설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으로 강해를 했습니다. 6-8명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인 백인 CATHY와 흑인 DORINA 가 참석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JOE, ELIZAR, ELIZABETH. 준, 김동수, 손혜수자매가 참석했습니다. 현직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두근거리며 설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EAM(ESF Academy Mission 밴쿠버어학연수 온 학생들) 사역.

지난달부터 시작한 8주 코스로 코스웍을 만들어 밴쿠버 관광지 방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캐필라노 써스펜션 브릿지, 크리브램 댐, 케이츠팍, 한인타운, 린벨리린케년, 스텐리파크, 랍슨거리, 앰블사이드 파크를 돌아다녔습니다. 1-3회까지는 7명의 지체들이 참석했는데 점차 시험기간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또 레벨 테스트로 인해 반이 나누어지면서 모임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7명 중에 2명의 지체만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코트디브아르 JOE형제와 미국의 뉴저지에 사는 CATHY 자매와 함께 ZOOM을 통해 매주 토요일에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공부 4과를 하고 이제 토요일 마다 있는 전체 그룹공부에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JOE, ELIZAR, TOSHI, CAREN, KYOZI,SAKI,VELIZA자매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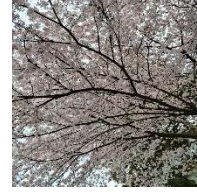


3)ECM(ESF Campus Mission 밴쿠버 대학 캠퍼스) 사역

밴쿠버에 4년제 대학은 세개입니다. SFU, UBC, CAPILANO입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대학은 SFU와 CAPILANO이고 UBC는 1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3월에는 2주간 봄 방학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엇그제 제가 살고 있는 BC주에 하루 1000명이 감염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남과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월이 되야 캠퍼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기도 바랍니다. 발로 만나고 눈을 보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하루에 5명씩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토요일 오후6시에 ZOOM을 통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지체들이 10명 정도 이루길 소망합니다. 현재 ECM모임에는 김동수, 손혜수, 서예화, JOE,CATHY가 참석중입니다. .



4) BIBLE Study 사역

성경공부는 일대일과 그룹으로 공부합니다. 그룹은 토요일 오후 6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공부하는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이루어집니다. 일대일을 하는 사람과 과목은 이러합니다. 서예화(로마서2과),손혜수(창7장),김동수(창38장),ELIZABETH(GENESIS1),JOE(THE WAY),CATHY(THE WAY)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모이는것도 허용되지 않고 맥도널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일대일 공부나 그룹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이열리고 마음이 열리는데 그냥 삭막한 인터넷 공간에서 공부하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곧 대면하여 공부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3. 기도제목

- 1) EAM(ESF ACADEMY MISSION) 1기가 마쳐지고 성경공부가 4회가 진행됩니다. 마치는 날까지 참석자들이 은혜를 받고 리더로 성장해 나가도록
- 2) ECM(ESF CAMPUS MISSION) 전도 모임을 매일 나갈수 있도록 그리고 5명이상 만남을 갖고 그들과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 3) BCIC(BLESSED CHURCH IN CHRIST)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와 식사 운동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영어 설교가 유창하게 될수 있도록. Elizar와 Tosi , Caren, CATHY, 참석하도록4) 코비드 상황이지만 교회성도와 멤버들이 감염되지 않고 학교, 생활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 5) 가족이 주안에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 6) 한달 사역과 생활비가 매달마다 잘 채워져서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 아들 형준이가 대학에 합격하도록(토론토 경제학과와 밴쿠버에서 간호학과 중에서)